

2월22일(월)/사도행전10:34~43

제목: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비로소 그가 본 환상의 의미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34~35절).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게 되는데 다른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만에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린 분이시며 그를 믿어야 죄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다(36~43절). 이 때 고넬료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처음 들었을 것이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구약의 정결 예식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배웠던 그에게 ‘예수’와 ‘죄 사함’과 ‘구원’이 연결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생소했을 것이다. 교회사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사울이 최초로 주장한 것이므로 기독교는 사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미 베드로도 이신칭의를 말하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는 이미 초기 기독교 시대 때부터 모든 사도들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가르침이었다.

2월23일(화)/사도행전10:44~48

제목: 교인 된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독교의 도에 관해서 말할 때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44절).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존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라워했다(45~46절). 이것은 유대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유대인 뿐 아니라 방인들에게마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강조한 것이다(47절). 이것은 아직도 유대적 편견의 장벽 속에 있던 할례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은 베드로를 몇 일을 더 집에 유하도록 청하였다(48절). 그들은 왜 베드로를 청하여 며칠을 더 머물게 하였을까? 베드로는 초신자 고넬료에게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더 가르쳐야 할 것이 있었다. 고넬료는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간청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 교인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안의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더 풍성한 지식을 얻고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월24일(수)/사도행전11:1~18

제목: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다(1절). 그러한 소식을 접한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했다(2~3절). 베드로는 지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베드로 자신이 본 보자기에 담겨있는 동물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뿐 아니라 그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한 사실을 말하였다(4~17절).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17절)고 되물었다. 이렇게 말하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평안을 얻게 되었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다(18절). 베드로는 변론을 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설명만 하였다. 기독교의 증명은 항상 사실에 입각한다. 기독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독교의 증명은 기독교가 일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적으로 말하는데 있다. 기독교는 악인을 선하게 만들고, 욕심쟁이를 헌신자로 만들고, 낙오자를 용맹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말하면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의무는 신앙에 관한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2월25일(목)/사도행전11:19~21

제목: 교회 안의 무명의 열심파들

고넬료 사건은 일단락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야기로 상황이 전환된다. 스테반의 순교로 핍박이 시작되자 흩어진 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다(19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20~21절).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큰 도시로 아시아의 심장부였다. 이 도시에는 밤낮으로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가장 저속한 이방 종교가 성행하는 곳이었다. 이 같은 대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들의 이름은 언급되어있지 않다. 그들은 곧 무명의 열심파들이었다. 안디옥 복음의 시초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무명의 열심파들에 의해서였다.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는 첫 시작점이 이런 최악의 도시였다는 점과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남의 눈에 띄고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이 일만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름 없는 무명의 열심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월26일(금)/사도행전 11:22~26

제목: 안디옥에서 얻은 별명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을 조사할 사람들을 보내었다(22절). 설마 이 최악의 도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의심하였을 것이다. 그 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수의 물결에 휩쓸린 이 도시를 보고 기뻐하고 권면하였다(23절) 그리고 바나바는 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에 사울을 청하였다. 바나바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이 도시의 책임자로 불렀고 함께 이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이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26절). 소수의 무명의 열심파들의 복음 전파와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 목회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이 단연 이 도시에서 빛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별명이었다. 이 말은 거의 욕이었고 경멸조로 부르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별명을 가지고 세계가 감탄하고 놀라워할 이름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을 경멸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이로워하고 있는가? 이 이름에 대한 책임을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